2019년 10월 25·26일 주말판 *스로*초동아

대표팀. 11월 19일 브라질 친선전 확정

대한축구협회는 한국축구국가대표팀이 오 는 11월 19일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에서 브라질과 친선경기를 갖는다고 24일 밝혔다. 레바논으로 2022 카타르 월드컵 2차 예선 4차전 원정을 떠나는 대표팀은 예 선 경기 이후 UAE로 이동해 브라질과 친선 경기를 치른다. 브라질에는 네이마르(파리 생제르맹), 쿠티뉴(바이에른 뮌헨), 피르미 누(리버풀) 등 세계적인 축구스타들이 포진 해 있다. 한국은 브라질과 그동안 총 5번의 A매치를 치러 1승4패를 기록했다. 대표팀 은 11월 4일 레바논, 브라질전에 나설 선수 명단을 발표한다.

황희찬, 챔스리그 나폴리전 골 관여

황희찬(23·잘츠부르크)이 24일(한국시간)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레드불 아레나에서 열린 2019~2020 유럽축구연맹(UEFA) 챔 피언스리그 32강 조별리그 E조 3차전 나폴 리(이탈리아)와 홈경기에서 풀타임을 소화 하며 팀의 첫 번째 골이 되는 페널티킥을 얻 어내는 등 선전했다. 0-1로 뒤진 전반 38분 페널티 에어리어 안으로 돌파를 시도하다 상대 반칙을 이끌어냈고 키커로 나선 엘링 홀란드는 이를 골로 연결했다. 2-3으로 패해 1승2패가 된 잘츠부르크는 나폴리(2승1무) 와 리버풀(2승1패·잉글랜드)에 이어 조 3위 를 유지했다.

이강인도 H조 릴전 후반교체 출전

이강인(18·발렌시아)은 프랑스 릴 스타드 피에르 모루아에서 벌어진 UEFA 챔피언스 리그 32강 조별리그 H조 3차전 릴OSC(프랑 스)와의 원정경기에서 후반 20분 교체로 투 입돼 그라이번 시즌 팀이 치른 챔피언스리 그 조별리그 3경기 연속 출전기회를 잡았지 만 별다른 활약상을 남기지 못한 채 경기를 마쳤다. 1-1 무승부에 그친 발렌시아는 1승 1무1패(승점4)로 아약스(네덜란드)와 첼시 (이상 2승1패·잉글랜드)에 이어 조 3위로 한 단계 내려섰다.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울산 vs 전북' K리그1 역대급 우승경쟁…잔여일정은 누구 편?

울산 "포항전 변수"…전북 "대구 껄끄러운데"

승점 72점 울산, 전북에 1점차 앞서 울산, 잔여 4경기 상대중 포항에 열세 전북은 1승1무1패 대구·강원전 중요

파이널라운드에 돌입한 2019시즌 K리 그1(1부 리그) 최고의 관전 포인트는 우승 향방이다. 현재 1위는 승점 72(21승9무 4패)의 울산 현대다. 2위는 1점 뒤진 전북 현대다. 하지만 박빙의 레이스에서 순위 는 언제든 뒤바뀐다. 올 시즌 1, 2위간 순 위 바뀜은 모두 9차례였다. 그만큼 '역대 급 우승경쟁'이다. 울산은 2005년 이후 14년 만에 정상 탈환을 노리고, 전북은 리 그 3연패에 도전한다.

이제 남은 건 단 4경기다. 이 일정을 어 떻게 소화하느냐에 따라 우승의 향방이 결정된다. 울산과 전북 모두 남은 4경기 상대팀과 올 시즌 전적이 6승3무3패(승점 21)로 똑같다.

울산은 이번 주말 강원FC전(26일 홈) 을 시작으로 FC서울(11월 3일 원정), 전 북(11월 23일 홈), 포항 스틸러스(12월



울산 김도훈 감독

1일 홈)를 상대한다. 전북은 서울(26일)을 홈으로 불러들인 뒤 대구FC(11월 3일 원 정)와 울산(11월 23일 원정), 강원(12월 1일 홈)과 차례로 대결한다.

경기 장소를 보면 울산의 마음이 조금 은 편할 듯하다. 홈 3경기, 원정 1경기다. 울산의 시즌 홈 승률은 84.3%(12승3무 1패)로 상당히 높다. 원정 승률은 66.7%다. 반면 전북은 홈과 원정이 각각



전북 모라이스 감독

2경기씩이다. 하지만 전북의 홈과 원정 승률은 75%로 똑 같다. 그만큼 장소에 크 게 영향을 받지 않는 팀이다.

상대팀과의 시즌 전적도 무시할 수 없 다. 울산은 강원과 서울(이상 2승1무)에 단 한번도 지지 않았다. 하지만 최종전 상 대인 포항에는 1승2패로 열세다. 전북은 서울에는 3승으로 압도적이지만 대구와 강원과는 나란히 1승1무1패로 껄끄럽다.

울산과 전북의 잔여경기 일정 및 상대 전적 울산 현대

가장 중요한 건 11월 23일 열리는 37라 운드 맞대결이다. 실제로 우승이 결정될 수 있는 매치다. 장소는 울산이다. 양 팀 은 올 시즌 1승1무1패로 균형을 이뤘다. 이 한판에 많은 게 걸려 있다.

프로축구연맹이 발표한 최근 5시즌의 마지막 4경기 평균 승점에 따르면, 전북 이 승점 7.4점으로 전체 1위다. 반면 울산 은 5.8점으로 하위권이다. 이 자료는 전북 의 강한 뒷심을 말해준다. 하지만 이것 또 한 참고자료일 뿐이다. 마지막까지 살얼 음판을 걸어야하는 현대가(家) 싸움, 최후 의 승자는 누가 될까.

최현길 기자 choihg2@donga.com

유료관중 200만시대…'K리그의 봄' 진행중

K리그1·2 합계 벌써 200만명 돌파 무료티켓 완전 제외·마케팅도 강화 치열한 순위・국제대회 호성적 한몫

2019시즌 K리그의 가장 큰 화두는 '관중 증대'다.

다. 그런데 과거와는 분위기가 전혀 다르다. 꾸준함이다. 봄이 연중 내내 지속되고 있다. 개막 특수의 영향이 있는 3~4월부터 쌀쌀 한 바람이 불기 시작한 10월까지도 축구장 의 뜨거운 기운은 가시지 않고 있다.

7월(21라운드 기준) K리그1 누적 관중이 100만 명(102만2032명)을 돌파했는데. 이는 지난 시즌 대비 2개월 이상 앞당긴 기록이 다. 지난해는 31라운드까지 마친 9월 말에 야 100만 관중을 찍었다.

순항은 계속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6일 "K리그1·2 누적 관중이 합계 200만 명 을 돌파(202만6300명)했다"고 공식 발표했 다. 파이널 라운드에 앞서 정규리그 33라운 드를 기준으로 한 K리그1은 158만4378명, 같은 기간 K리그2(32라운드 기준)는 44만 증대가 수익 증대로 이어지기 위해선 무료

1922명을 기록했다. K리그1·2 합계 관중이 200만 명을 돌파한 것은 2016시즌(212만 239명) 이후 3년 만으로 지난해는 155만 1947명, 2017시즌은 190만9128명이었다.

●순수 유료관중

관중 증대가 더욱 반가운 것은 관중집계 올해도 어김없이 'K리그의 봄'이 찾아왔 방식 때문이다. K리그는 지난해부터 전면 유료관중 집계로 전환했다. 순수 유료 팬들 만으로 200만 명대를 돌파한 최초의 시즌이 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 물론 실 관중집계는 이전부터 시행됐다. 프로축구연맹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유 ·무료 구분 없이 경기장 현장에서 티켓을 제 출하고 경기장에 입장한 인원만을 집계했 다. 시즌권 구매자라도 경기장에 입장하지 않으면 실 관중에서 제외했다. 그 결과 티켓 발권을 기준으로 관중을 집계하면서 허수까 지 포함, 관중수를 지나치게 부풀리던 관행 이 근절됐다.

2018년부터 정책은 더욱 강해졌다. 실 관중 가운데 무료 티켓(초청권)으로 입장 한 인원은 공식관중에서 제외했다. 관중수

티켓을 근절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덕분이었다.

다만 2018년에는 경기장 내 전광판과 장 내 아나운서가 관중수를 발표할 때 '유료관 중수'란 표기를 했다면 올 시즌부터는 아예 연맹 규정에 'K리그 공식 관중은 유료 관중' 이란 항목을 추가해 전광판에 관중수를 표 시할 때도 '공식관중수'로 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각 구단들의 치열한 노력이 수 반됐다. 지금까지는 '개막 특수'가 지워지고 라이벌 종목인 프로야구가 본격적으로 시작 되는 4~5월을 기점으로 관중이 빠르게 줄 었으나 올해는 오히려 6월과 한여름 불볕더 위가 기승을 부린 8월에 최근 5년 중 최다관 중이 입장했다. '축캉스(축구+바캉스)'와 '임시 워터파크' 등 이벤트를 마련해 여름철 관중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다.

특히 8월 기준, 평균관중 1만 명 이상인 구단들이 3개(전북 현대·FC서울·대구FC) 나 됐고, 9000명대 후반에 울산 현대, 수원 삼성 등이 올라서며 구단별 편차가 확연히 줄어들었다는 분석도 나왔다.

●각급 대표팀 성적+역대급 순위다툼

'K리그 붐업'은 지난해 러시아월드컵 조별 리그 3차전을 기점으로 불이 붙었다. '전차군 단' 독일을 2-0으로 격파한 감동이 2018자카

〈24일〉

KCC

〈24일〉

πロネコ

84

42

올 여름에는 폴란드에서 개최된 2019 국제축 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 준우 승으로 축구 인기가 식지 않았다. 이러한 각 연령별 국제대회를 통해 K리그에는 전국구 스타들이 등장했고, 이들을 보기 위해 경기 장을 찾아오는 다양한 팬들이 형성됐다.

여기에 '역대급'으로 불리는 순위경쟁도 힘을 실었다. 전북의 독주가 사라진 대신. 울산과 각축전이 시즌 내내 이어지고 있고, 파이널A(1~6위) 진입을 위한 6강 다툼과 여러 팀들이 물고 물린 강등권 싸움까지 거 의 모든 순위에서 접전이 이어졌다.

시민구단 대구의 노력도 빼놓을 수 없다. 도심 한복판에 마련한 '한국형 전용경기장' 으로 평가받는 DGB대구은행파크에 둥지를 튼 대구는 엄청난 열기를 자랑한다. 파이널 라운드 첫 경기(34라운드)인 20일 울산과 홈 경기에도 1만1000여 명의 팬들이 스탠드를 채웠다. 이는 대구를 롤 모델 삼아 전용구장 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고 구단 들도 단순한 성적이 아닌 마케팅에 대한 중 요성을 보다 크게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됐다.

그밖에 2010년부터 이듬해까지 시행된 '5분 더 캠페인'을 부활시켜 ATP(실제경기 시간)를 5분 더 늘려 경기지연을 최소화하는 데 선수들이 동의했고, 다변화된 중계전략 및 뉴미디어 홍보 강화도 큰 영향을 끼쳤다 르타-팔렘방아시안게임 금메달로 이어졌고, 는 분석이다. 남장현기자 yoshike3@donga.com

sports2i

스포츠투아이와 함께하는 스포츠기록실

남자프로농구

인삼공사 82

여자프로농구

오후7시, IB스포츠

●2019-2020 현대모비스 KBL 경기결과

•2019-2020 하나원큐 WKBL 경기결과

37



•역대 한	•역대 한국시리즈 승패							
연 도	승 리 팀	전 적	패 배 팀					
2012	삼성 (4승2패)	OOXXOO	SK (2승4패)					
2013	삼성 (4승3패)	XXOXOOO	두산 (3승4패)					
2014	삼성 (4승2패)	XOOXOO	넥센 (2승4패)					
2015	두산 (4승1패)	X0000	삼성 (1승4패)					
2016	두산 (4승)	0000	NC (4패)					
2017	KIA (4승1패)	X0000	두산 (1승4패)					
2018	SK (1승)	0	두산 (1패)					
2019	두산 (2승)	00	키움 (2패)					



※ 한국시간				※ ★표는 필요시 경기	
프로배구				〈24일〉	
●도드람 2019-2020 V	'리그	여자부	경기	 결과	
IBK기업은행	0	18 - 25 22 - 25 21 - 25	3	도로공사 (1승1패)	
●도드람 2019-2020 V	'리그	남자부	경기	 결과	
KB 손해보험	2	21 - 25 25 - 19 26 - 24 25 - 27	3	현대캐피탈 (1승 2패)	

우리은행	75	29 46	16-14 13-17 24-7 22-11	31 18	49	KEB하나 (1승1패)
	,					
경기 예고						
남자프로농	5구∙0	취	도로농구	L		⟨25일⟩
•2019-2020 ই	현대모	비스 K	(BL			
DB		<	원주종합	<u></u>		모비스
오후7시, SPOTV2						
•2019-2020 ₹	하나원	7 WK	(BL			
신한은형	ţ	<	인천도원	1>		삼성생명

프로배구		〈25일〉
•도드람 2019-2020	V리그 〈남자부〉	
OK저축은행	〈안산상록수〉	대한항공
오후7시, KBSN스포츠		

프로야구						
●2019 신한은행 MY CAR KBO리그						
25일	두산 (후랭코프)	〈고척·KS 3차전〉	키움 (브리컴)			
	오후6시30분, MBC TV					
2601	두산	〈고척·KS 4차전〉	키움			
202	오후2시, KBS 2TV					

二五五十							
●하나원큐 K리그1 2019 〈35라운드〉							
	포항	〈포항스틸야드〉	대구	전북	〈전주W〉	서울	
26일	오후2시,	SPOTV+		오후4시,	JTBC3 FOX Sports	3	
20월	울산	〈울산종합〉	강원				
	오후6시,	MBC스포츠플러스					
	상주	〈상주시민〉	성남	경남	〈창원축구센터〉	제주	
27일	오후2시,	MBC스포츠플러스		오후3시,	JTBC3 FOX Sports	3	
21 월	인천	〈인천전용〉	수원				
	오후4시,	SPOTV+					
					•		

w	ỡ∣오늘의 토토	Ē.	〈25일〉				
●야구토토 매치 11회차 대상경기 및 게임일정							
경기	경기일시	홈팀 vs 원정팀	경기장소				
1	10.25 (금) 18:30	키움 vs 두산	고척스카이돔				
•농	구토토 W매치 66	S회차 대상경기 및 게	임일정				
경기	경기일시	홈팀 vs 원정팀	경기장소				
1	10.25(금)19:00	신한은행 VS 삼성생명	인천도원시립체육관				